한국유기농업학회지 제12권 1호
KOREAN JOURNAL OF ORGANIC AGRICULTURE
Volume 12, Number 1: 45-66, March 2004.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의 행태 및 특성 분석

조 완 형*

Analyzing the Producer's Behavior and Characteristics of Environmentally 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Cho, Wan-Hyung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to analyze the producer's behaviors and characteristics of environmentally 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organic agricultural products and non-chemicals agricultural products, low-chemicals agricultural products excluded). Firstly the present situation of environmentally-friendly agriculture is analyzed. Secondly the producer's behavior and attitude is analyzed tabularly and the social and economic characteristics of producers is analyzed by logit model with the results of sample surveys on 341 farmers who have been producing quality-certificated environmentally 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Thirdly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problems and alternatives means in order to activate production of environmentally 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are finded and showed.

Key Words : quality-certificated, environmentally-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organic agricultural products and non-chemicals agricultural products), the producer's behavior and characteristics, logit model

Ⅰ. 서 론

우리나라 농업은 그동안 양적 성장을 목표로 생산효율과 수익성을 과도하게 추구해온 결과 생산농민의 농약중독, 단작화와 연작화에 따른 지력저하, 농약과 화학비료의 고투입에 따른 인체피해와 환경오염(지하수와 토양 잔류문제)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켰다. 또한 근래 각종 식품공해와 잔류농약 문제가 빈발하면서 안전하고 건강한 먹을거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해를 거듭할수록 수입농산물에 의한 식품공급구

* 사단법인 한살림 상임이사

조가 심화되는 가운데 사회적으로 수입농산물의 비안전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정세를 배경으로 하여 최근 일반관행농업에서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하는 농가가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또한 일반농산물과 수입농산물에 대한 불만과 불안을 가지면서 친환경농산물의 사용가치(안전성, 맛과 영양가치)를 인식하는 소비자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사회적으로 친환경농산물 생산이 빠르게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안정된 판로부족, 많은 노동력 투입, 높은 생산비 부담, 일정기간 생산량 감소, 친환경농산물 생산기술의 미정착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상존해 있어 친환경산물의 생산확대로 적극적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의 의향 및 행태와 사회경제적 특성을 분석하고, 그 분석결과를 토대로 하여 친환경농산물 생산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를 위하여 전국의 유기농산물 및 전환기유기산물과 무농약농산물 표시인증 농가수의 5%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341농가에 대하여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즉 지역별로는 경기 65농가, 강원 61농가, 충북 36농가, 충남 27농가, 전북 21농가, 전남 27농가, 경북 36농가, 경남 60농가, 제주 8농가 등이며, 생산조건별로는 유기농산물 41농가, 전환기유기농산물 24농가, 무농약농산물 276농가를 대상으로 하였다.

Ⅱ. 친환경농산물의 생산현황

1999년에는 1,306농가가 876ha의 경지에서 친환경농산물 26,643톤을 생산하였으나, 그 후 급속히 증가하여 2003년에는 23,309농가가 24,564ha의 경지에서 친환경농산물 366,107톤을 생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2002년에는 1999년 대비 농가수는 약 18배, 경지면적은 약 28배, 생산량은 약 1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체 농산물 생산량 중에서 친환경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도 1999년 0.15%를 차지하였으나 2003년에는 2.14%로 빠르게 늘어났으며, 또 2003년의 경우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 수는 23,309호로 전체 농가수의 약 1.82%, 친환경농산물 경지면적은 24,564ha로 전체 경지면적의 1.33%를 차지하고 있다. 그 중에서 유기농산물(전환기유기재배 포함)의 생산량은 전체 생산물 생산량의 0.20%, 유기농산물 생산농가 수는 전체 농가수의 0.22%, 친환경농산물 경지면적은 전체 면적의 0.31%로 아직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친환경농산물의 재배유형별로 보면, 1999년의 경우 친환경농산물 중에서 유기농산물(전환기유기농산물 포함) 생산농가가 27.2%, 무농약농산물 생산농가가 34.4%, 저농약농산물 농가가 38.4%로 나타났으며, 2003년의 경우 각각 11.8%, 31.9%, 56.3%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 중에서 저농약농산물 생산농가가 절반이상 차지하고 있으며, 무농약농산물과 저농약농산물을 합하면 88.2%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1999년의 경우 친환경

농산물 생산량 중에서 유기농산물이 26.3%, 무농약농산물이 44.3%, 저농약농산물이 29.5% 차지하고 있으나 2003년의 경우 각각 9.3%, 32.9%, 57.8%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유기농산물의 비중이 매우 낮은 수준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표 1〉 표시인증 친환경농산물의 유형별 생산현황 변화 추이

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
전체	농가수(호)	1,306(0.10)	2,448(0.18)	4,678(0.34)	11,892(0.93)	23,309(1.82)
	면 적(ha)	876(0.04)	2,039(0.11)	4,553(0.24)	11,240(0.61)	24,564(1.33)
	생산량(톤)	26,643(0.15)	35,406(0.19)	87,279(0.45)	200,374(1.17)	366,107(2.14)
유기	농가수(호)	355(0.03)	353(0.03)	442(0.03)	1,505(0.12)	2,756(0.22)
	면 적(ha)	231(0.01)	296(0.02)	450(0.02)	1,602(0.09)	5,654(0.31)
	생산량(톤)	6,996(0.04)	6,538(0.04)	10,670(0.05)	21,114(0.12)	34,191(0.20)
무농약	농가수(호)	449(0.03)	1,060(0.08)	1,645(0.12)	4,084(0.32)	7,426(0.58)
	면 적(ha)	262(0.01)	876(0.05)	1,293(0.07)	3,727(0.20)	6,756(0.37)
	생산량(톤)	11,798(0.07)	15,694(0.08)	32,274(0.17)	76,828(0.45)	120,358(0.70)
저농약	농가수(호)	502(0.04)	1,035(0.07)	2,591(0.19)	6,303(0.49)	13,127(1.03)
	면 적(ha)	383(0.02)	867(0.04)	2,811(0.15)	5,911(0.32)	12,155(0.66)
	생산량(톤)	7,849(0.04)	13,174(0.07)	44,334(0.23)	102,432(0.60)	211,558(1.24)

주 : 1) 괄호 안의 수치는 당해연도 전국 총 농가수, 면적, 생산량 대비 비율을 나타냄.
2) 2003년의 경우 전국 총 농가수, 면적, 생산량에 대한 자료가 공식 집계결과가 발표되지 않아 편의 상 2002년의 해당자료를 대체하여 이용함.

자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2004)

Ⅲ.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의 행태 및 특성 분석

1. 조사대상 농가의 특성

친환경농산물 생산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조사대상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의 일반적인 특성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조사대상 생산자의 평균연령은 49세로 나타나 일반관행농업 종사자들이 고령화되어가고 있는 점을 감안해볼 때 상대적으로 젊은 계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친환경농업이 일반관행농업에 비해 많은 노동력이 투입된다는 사실을 반영해주고 있다. 조사 대상농가의 농업종사경력은 약 21년이며, 일반관행농업에서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한 지는 약 8년에 이르고 있다.

조사 대상농가의 입지조건을 보면 평야지 49.6%, 중산간지 38.7%, 산간지 11.7%의 순으

로 나타났다. 또 전체 농업조수입 중에서 50%이상을 차지하는 주작목을 보면 채소 60.1%, 수도작 14.7%, 과실 13.5%, 기타 11.7% 순으로 나타났다. 친환경농업교육과 관련해서 보면 교육횟수는 1~5회가 가장 많았으며, 그리고 절반이상이 환경농업단체를 통해 교육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농가는 전 농경지면적을 친환경농업에 투입하는 경우는 일부에 지나지 않고 대부분 농지면적의 일부만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하고 있으며(전체 면적의 68.6%), 그 밖의 농지는 일반관행농업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농가의 호당 경지면적은 논 3,183평, 밭 3,202평으로 논과 밭의 호당 경지면적이 비슷하다.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가의 호당 경지면적이 일반관행농업을 하고 있는 일반농가에 비해 다소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농가가 친환경농업에 사용한 논과 밭은 각각 1,816평과 2,506평이고, 일반관행농업에 사용한 논과 밭이 각각 1,307평과 696평이었다.

2. 친환경농업의 동기

친환경농업을 시작한 동기를 보면 환경보전과 국민건강을 위해 친환경농산물 재배를 시작한 경우가 28.2%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농약중독 등 일반관행농업의 피해 때문에 시작한 것이 18.8%, 수익성이 좋아 소득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시작한 것이 18.6%를 차지하고 있다. 그밖에 '친환경농업 관계 교육을 받고 나서'가 13.8%, '친환경농업 이념이나 종교적 신념 때문에'가 7.7%,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농가의 권유로'가 7.2%, '정부의 친환경농업 정책 및 지원에 의해'가 5.1% 등으로 나타났다<표 2>.

따라서 친환경농업을 시작한 동기는 환경보전과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농약과 화학비료를 배제하고 환경친화적인 농업방식과 농업철학을 가진 선구적 농민들에 의해 시작된 것이 주변 농가에 확산되면서 친환경농업 실천 생산자가 증가해온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 친환경농업을 시작하는 동기가 과거와는 달리 부분적으로 수익성이라는 경제적 동기로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표 2>에서 나타나듯이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하고 있는 생산자는 수익성을 추구하는 경제적 동기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다. 이것은 친환경농산물의 생산확대를 위해서는 친환경농업 실천에 따른 위험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정부의 적절한 정책지원사업과 일정수준의 수익성이 보장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표 2〉 친환경농업을 시작한 동기

(단위 : 명, %)

구 분	응 답 수	구 성 비
수익성이 좋아 소득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157	18.6

구 분	응 답 수	구 성 비
환경보전과 국민의 건강을 위해	237	28.2
농약중독 등 일반관행농업의 피해 때문에	158	18.8
친환경농업 이념이나 종교적 신념 때문에	65	7.7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농가의 권유로	61	7.2
친환경농업 관계 교육을 받고나서	116	13.8
정부의 친환경농업 정책 및 지원에 의해	43	5.1
기 타	5	0.6
합 계	842	100.0

2. 친환경농업 관련 기술과 정보의 습득방법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경우에는 재배하기 쉬운 품목과 어려운 품목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관행농업에 비해 병충해의 영향도 크며, 또 이에 따른 생산량 감소도 나타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친환경농업 관련 기술과 정보의 습득 방법을 살펴보면, 친환경농업 생산자단체로부터 습득하는 경우가 23.1%, 친환경농업 관련 서적이나 잡지를 통해 습득하는 경우가 21.7%, 농업관계기관의 기술교육을 통하여 습득하는 경우가 21.5%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스스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터득해 가는 경우가 18.0%, 이웃 친환경농업 생산자로부터 습득하는 경우가 14.5% 등으로 나타났으며, 소수 의견이긴 하지만 인터넷을 통해 친환경농업 관련 기술이나 정보를 습득하는 경우도 있었다<표 3>.

따라서 친환경농업단체나 농업기관 수준의 친환경농업교육을 좀더 활성화하고, 또 적절한 친환경농업 교육프로그램도 뒷받침된다면 친환경농업 기술수준과 정보습득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표 3〉 친환경농업 관련 기술과 정보의 습득방법

(단위 : 명, %)

구 분	응 답 수	구 성 비
친환경농업 관련 서적이나 잡지를 통하여	166	21.7
이웃 친환경농업 생산농가로부터	111	14.5
친환경농업 생산자단체로부터	177	23.1
시행착오를 거쳐 반복한 경험으로부터	138	18.0

구 분	응 답 수	구 성 비
농업관계기관의 기술교육을 통하여	165	21.5
친환경농업 관련 인터넷을 통하여	6	0.8
기 타	3	0.4
합 계	766	100.0

3. 친환경농산물 생산과정의 애로점과 친환경농업 실천기술의 효과

친환경농산물 생산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병충해 방제 46.2%, 제초작업 24.8%, 토양관리 5.6%, 친환경농자재 구입 또는 제조 4.7% 등으로 나타났다<표 4>. 그리고 친환경농업 실천기술의 효과에 대한 질문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가능성을 보고 계속 실천하겠다'가 46.9%로 가장 많이 응답했으며, 이어 '다소 어려움은 있지만 만족한다'가 46.0%, '아주 만족한다'가 6.2%, '문제점이 많아 계속하기 어렵다'가 0.9%로 나타났다<표 5>.

〈표 4〉 친환경농산물 생산과정의 가장 어려운 점

(단위 : 명, %)

구 분	응 답 수	구 성 비
제초작업	106	24.8
병충해방제	198	46.2
토양관리	24	5.6
친환경농자재 구입 또는 제조	20	4.7
기 타	80	18.7
합 계	428	100.0

〈표 5〉 친환경농업 실천기술의 효과

(단위 : 명, %)

구 분	응 답 수	구 성 비
아주 만족한다	21	6.2
다소 어려움은 있지만 만족한다	157	46.0
어려움이 있지만 가능성을 보고 계속 실천해보겠다	160	46.9
문제점이 많아 계속하기 어렵다	3	0.9
합 계	341	100.0

친환경농업 실천 생산자는 친환경농업기술의 불안정성과 노동력 부족 등으로 병충해 방제와 제초작업에 가장 큰 애로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자신의 친환경농업 실천기술에 대해 확신하고 있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친환경농업의 전망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4. 친환경농산물의 생산량 감소와 수익성 정도

친환경농산물과 일반농산물의 생산량 차이에 대해서는 친환경농산물이 일반농산물보다 생산량이 70% 감소한다는 응답이 26.2%로, 80% 감소한다는 응답이 25.9%로 나타나 대체로 일반농산물에 비해 친환경농산물의 생산량이 20~30%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친환경농산물과 일반농산물의 생산량이 같다고 응답한 경우가 12.8%, 생산량이 30%이상 떨어진다고 응답한 경우가 14.6%로 나타나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생산농가 간에도 생산량의 편차가 큰 것으로 파악된다<표 6>.

〈표 6〉 친환경농산물과 일반농산물의 생산량 차이(일반농산물=100)

(단위 : 명, %)

구 분	응 답 수	구 성 비
70 미만	49	14.6
70	88	26.2
75	11	3.3
80	87	25.9
85	17	5.1
90	25	7.4
95	6	1.8
100	43	12.8
101 이상	10	2.9
합 계	336	100.0

친환경농산물의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는 병충해 피해가 72.2%로 절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잡초 피해 12.4%, 불안정한 가격조건 6.5%, 지력저하 5.4%로 나타났다. 따라서 친환경농산물의 적정한 단위면적당 생산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병충해 방제기술과 제초작업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표 7>.

〈표 7〉 친환경농산물의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낮은 이유

(단위 : 명, %)

구 분	응 답 수	구 성 비
병충해 피해	267	72.2
잡초 피해	46	12.4
지력저하	20	5.4
불안정한 가격조건	24	6.5
기 타	13	3.5
합 계	370	100.0

일반관행농업과 비교한 친환경농업의 수익성 정도에 대해서는 '높은 편이다'가 54.5%, '비슷하다'가 30.2%, '낮은 편이다'가 10.3%, '매우 높다'가 3.8%, '매우 낮다'가 1.2% 등으로 나타나 비교적 친환경농업의 수익성이 일반관행농업보다 더 나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8>. 이것은 근래 먹을거리의 안전성을 둘러싼 사회적 불신이 팽배해지면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 변화가 작용한 결과, 일반농산물에 비해 친환경농산물이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으로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친환경농업 생산자 중에서 어느 정도 판로가 안정된 생산자는 수익성이 높다고 응답했으나 판로가 안정되지 않은 생산자는 아직 수익성이 낮다고 응답하고 있어 친환경농업의 확대 및 발전을 위해서는 안정된 판로 개척이 중요하다.

〈표 8〉 일반농산물 대비 친환경농산물의 수익성 정도

(단위 : 명, %)

구 분	응 답 수	구 성 비
수익성이 매우 높다	13	3.8
수익성이 높은 편이다	186	54.5
비슷하다	103	30.2
수익성이 낮은 편이다	35	10.3
수익성이 매우 낮다	4	1.2
합 계	341	100.0

5. 친환경농산물의 가격결정기준

친환경농산물 생산자들에게 바람직한 친환경농산물 가격결정기준에 대해 물어본 결과, 일반농산물 가격보다 일정비율 높게 결정하는 것이 28.7%, 생산비와 환경보전가치를 고려하는 수준에서 결정하는 것이 26.7%, 생산비를 보장하는 수준에서 결정하는 것이 25.8%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 생산자의 소득을 보장하는 수준에서 결정하는 것이 16.7%로 나타났다<표 9>. 즉 친환경농산물 생산자들은 대체로 생산비를 보장받으면서 일반농산물보다 높은 가격 실현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9〉 친환경농산물의 바람직한 가격결정기준

(단위 : 명, %)

구 분	응 답 수	구 성 비
일반농산물과 비슷하게	3	0.9
일반농산물 가격보다 일정비율 높게	98	28.7
생산자의 소득을 보장하는 수준으로	57	16.7
친환경농산물의 생산비를 보장하는 수준으로	88	25.8
생산비와 환경보전가치를 고려하는 수준으로	91	26.7
기 타	4	1.2
합 계	341	100.0

그리고 친환경농산물의 판매가격 수준에 대해서는 '보통이다'가 43.1%, '만족한다'가 30.5%, '불만족한다'가 21.4% 등으로 나타나 약간 만족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10>.

〈표 10〉 친환경농산물의 판매가격 수준

(단위 : 명, %)

구 분	응 답 수	구 성 비
매우 만족한다	6	1.8
만족한다	104	30.5
보통이다	147	43.1
불만족한다	73	21.4
매우 불만족한다	11	3.2
합 계	341	100.0

6. 친환경농산물 판매의 애로점과 판매경로

친환경농산물 판매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은 안정된 판로 확보의 어려움이 55.4%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이어 소비자의 인식 부족이 28.1%, 낮은 수익성이 9.1% 등으로 나타났다<표 11>. 따라서 친환경농산물 판매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안정된 판로 개척이 매우 중요한 관건이며, 또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제고시키는 교육·홍보활동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표 11〉 친환경농산물 판매 상의 가장 큰 애로점

(단위 : 명, %)

구 분	응 답 수	구 성 비
소비자 인식이 부족하다	96	28.1
안정된 판로를 확보하기 힘들다	189	55.4
가격이 적절하지 못하여 수익성이 낮다	31	9.1
어려움이 없다	6	1.8
기 타	19	5.6
합 계	341	100.0

친환경농산물의 주판매처는 전문유통업체가 19.5%, 백화점·할인점·수퍼마켓이 14.4%, 친환경농산물 전문판매점이 12.2%, 농협하나로클럽 및 전문판매장 10.8%, 소비자단체가 9.5%, 생산자 판매단체가 8.7%, 일반도매시장 8.3% 등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과거에는 주로 소비자단체와 생산자 판매단체 등을 통해 판매되었으나, 최근 일반소매유통을 통한 판매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해볼 수 있다. 그리고 일반도매시장을 통한 판매도 8.3%를 차지하고 있는데,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생산자는 안정된 판로를 확보하지 못한 생산자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12>. 도매시장을 경유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 수준에 판매

〈표 12〉 친환경농산물의 주판매처

(단위 : 명, %)

구 분	응 답 수	구 성 비
소비자단체	48	9.5
생산자 판매단체	44	8.7
전문유통업체	99	19.5

구 분	응 답 수	구 성 비
백화점 · 할인점 · 수퍼마켓	73	14.4
친환경농산물 전문판매점	62	12.2
농협하나로클럽과 전문판매장	55	10.8
친환경농산물 전문 쇼핑몰	7	1.4
식품가공업체	17	3.4
일반도매시장	42	8.3
기 타	60	11.8
합 계	507	100.0

된다는데 문제가 있으며, 앞으로 친환경농산물 생산자를 계속 늘려가기 위해서는 안정된 판로를 마련해주거나 도매시장 안에서 그 품질을 인정받아 적정한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는 거래방식이 마련되어야 한다.

7. 친환경농산물의 전자상거래

친환경농산물 전자상거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9.9%가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3>. 아직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개별 생산자 수준에서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친환경농산물 전자상거래의 성과에 대해서는 '향후 성과가 있겠지만 현재는 성과가 크지 않다'가 63.2%, '성과가 크다'가 20.6%, '별 성과가 없다'가 14.7%로 나타나 대체로 현재 별다른 성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4>. 그러나 앞으로 친환경농산물 전자상거래를 하겠다는 생산자가 65%로서 응답자의 절반을 넘어서고 있어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 입장에서는 전자상거래를 새로운 판매처를 확보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표 15>.

〈표 13〉 친환경농산물 전자상거래 유무

(단위 : 명, %)

구 분	응 답 수	구 성 비
그 렇 다	68	20.1
아 니 다	271	79.9
합 계	339	100.0

〈표 14〉 친환경농산물 전자상거래의 성과

(단위 : 명, %)

구 분	응 답 수	구 성 비
성과가 크다	14	20.6
향후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현재는 성과가 크지 않다	43	63.2
별 성과가 없다	10	14.7
기 타	1	1.5
합 계	68	100.0

〈표 15〉 향후 친환경농산물 전자상거래를 추진할 의사

(단위 : 명, %)

구 분	응 답 수	구 성 비
있 다	208	65.0
없 다	112	35.0
합 계	320	100.0

8. 친환경농업 실천 상의 문제점과 향후 전망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데 있어 문제점으로는 안정된 가격조건의 판로 부족이 43.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노동력 부족이 34.6%, 자금과 기술 부족이 10.4%, 낮은 소득이 7.2% 등으로 나타났다<표 16>.

〈표 16〉 친환경농업 실천 상의 문제점

(단위 : 명, %)

구 분	응 답 수	구 성 비
노동력이 부족하다	130	34.6
소득이 낮다	27	7.2
자금과 기술이 부족하다	39	10.4
안정된 가격으로 판매할 판로가 없다	164	43.6
기 타	16	4.2
합 계	376	100.0

그리고 친환경농업의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밝은 편이다'가 71.0%, '매우 밝다'가 14.1%로 나타나 대체로 친환경농업에 거는 기대가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표 17>. 이것은 오늘날 전면적인 농업위기 국면에서 친환경농업을 하나의 대안농업으로 인식하는 경향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표 17〉 친환경농산물의 향후 전망

(단위 : 명, %)

구 분	응 답 수	구 성 비
매우 밝다	48	14.1
밝은 편이다	242	71.0
어두운 편이다	29	8.5
매우 어둡다	2	0.6
잘 모르겠다	20	5.9
합 계	341	100.0

9. 향후 친환경농산물 생산의향

1)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 확대여부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하는 생산자들이 향후 친환경농산물 생산확대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확대가 43.4%, 현상유지가 51.3%로 나타났으며, 축소하거나 포기하겠다는 응답은 매우 낮게 나타났다<표 18>.

〈표 18〉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 확대여부

(단위 : 명, %)

구 분	응 답 수	구 성 비
확 대	148	43.4
현 상 유 지	175	51.3
축 소	16	4.7
포 기	2	0.6
합 계	341	100.0

2) 친환경농산물 생산확대 의향의 특성분석

장래 친환경농산물의 생산확대 여부(PROD), 즉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을 늘릴 것인가 혹은 늘리지 않을 것인가라는 생산자의 의향[2]이 어떠한 생산자 개별 특성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추정함수를 채택하고 이항선택모형(binary choice model)인 로짓모형(Logit Model)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3]

$$PROD_i = \alpha_0 + \beta_1 ACAD_i + \beta_2 AGE_i + \beta_3 CARE_i + \beta_4 CROP1_i + \beta_5 CROP2_i + \beta_6 CROP3_i + \beta_7 LOCA_i + \beta_8 YILD_i$$

ACAD : 경영주의 학력(년) (초졸=6, 중졸=9, 고졸=12, 대졸이상=16)
AGE : 경영주의 연령(세)
CARE : 경영주의 친환경농업 실천 경력(년)
CROP1 : 농업조수입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주작목 dummy1(수도작=1, 수도작외=0)
CROP2 : 농업조수입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주작목 dummy2(시설원예=1, 시설원예외=0)
CROP3 : 농업조수입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주작목 dummy3(과수=1, 과수외=0)
LOCA : 자연입지조건 dummy(평야지=1, 평야지외(중산간지+산간지)=0)
YILD : 일반농산물을 100으로 볼 때 친환경농산물의 기대 생산량 수준

로짓모형(Logit Model)을 이용하여 친환경농산물 생산확대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19>. 모형의 t-검정 결과를 보면 계수의 추정치가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 변수는 경영주의 학력, 경영주의 연령, 농업조수입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주작목 더미 1과 더미 2, 자연입지조건 더미이다. 즉 경영주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주작목이 수도작→시설원예 순서로, 농업입지조건이 평야지보다는 중간지나 산간지일수록 앞으로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확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통계적 유의성은 떨어지지만 친환경농업 실천경력이 적을수록 장래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을 확대할 의

2) 친환경농업 실천 생산자가 앞으로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늘릴 것인가" 또는 "늘리지 않을 것인가"의 2가지 상태를 취하는 이항반응(binary response)의 경우, 늘리는 경우는 1, 늘리지 않는 경우는 0을 취하는 더미변수(dummy variable)를 이용하여(비연속적인 특징) 분석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

3) 확률적 선택모형에는 선형확률모형(Linear Probability Model), 로짓모형(Logit Model), 프로빗모형(Probit Model) 등이 있으며, 선형확률모형은 종속변수를 더미변수로 처리한 선형회귀분석모형을 의미한다. 이러한 선형확률모형은 적용이 간단한 장점이 있는 반면, 계수를 추정할 때 이분산(heteroscedasty) 문제가 발생하고 예측된 확률치가 (0, 1)의 범위를 벗어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로짓모형과 프로빗모형은 선형확률모형의 단점인 독립변수의 변화에 따른 확률 증가 혹은 감소를 극복할 수 있는 모형이다.

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존에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생산농가를 대상으로 아직 일반관행농업을 하고 있는 농경지를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하도록, 즉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을 더욱 확대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교육수준이 높고 상대적으로 젊고 친환경농업 실천경력이 적은 경영주를 대상으로 농업입지조건이 불리한 지역, 즉 중산간지나 산간지에서 수도작이나 시설원예를 중심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친환경농업의 의의 및 필요성과 친환경농업기술 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생산농가의 경우 이미 자신의 농경지면적 중에서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을 상대적으로 많이 늘리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생산농가의 경우 아직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앞으로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을 점진적으로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표 19〉 장래 친환경농산물 생산확대 여부에 미치는 요인분석 결과

구 분	추정계수	t값
Constant	-0.254505	-0.199210
ACAD	0.062743	1.651655 *
AGE	-0.046421	-3.451171 ***
CARE	-0.150280	-0.985953
CROP1	1.433456	1.796487 *
CROP2	1.512405	1.976850 **
CROP3	1.152738	1.345401
LOCA	-0.297031	-1.763340 *
YILD	0.003964	0.570273

주 : 1) Log likelihood=-218.1728
2) *** 1% 유의수준에서 유의성이 있음.
** 5% 유의수준에서 유의성이 있음.
* 10% 유의수준에서 유의성이 있음.

3) 유기재배로 전환계획

무농약농산물을 재배하는 생산자들이 '향후 유기재배로 전환할 계획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73.5%가 계획이 있으며, 26.5%는 계획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20>. 즉 현재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생산자는 절대적으로 유기재배로 전환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기재배로 전환하려는 이유에 대해서는 '유기재배를 하면 친환경농업 생산자로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32.1%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유기재배를 위한 영

농기술이나 지식이 습득되었기 때문'이 30.0%, '유기재배를 하면 안정된 판매망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 20.8%, '유기재배를 하면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 14.7%로 나타났다. 친환경농업 생산자가 향후 유기재배로 전환하려는 목적은 경제적 동기보다 사회적 동기가 더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표 21>.

〈표 20〉 향후 유기재배로 전환계획

(단위 : 명, %)

구 분	응 답 수	구 성 비
계 획 이 있 다	219	73.5
계 획 이 없 다	79	26.5
합 계	298	100

〈표 21〉 유기재배로 전환계획의 이유

(단위 : 명, %)

구 분	응 답 수	구 성 비
유기재배를 위한 영농기술이나 지식이 습득되었기 때문에	114	30.0
유기재배를 하면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56	14.7
유기재배를 하면 안정된 판매망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79	20.8
유기재배를 하면 친환경농업 생산자로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122	32.1
기 타	9	2.4
합 계	380	100.0

그리고 현재 무농약재배를 계속하려는 이유에 대해서는 유기재배 영농기술과 영농자금의 부담이 40.6%, 안정된 판매망 확보의 어려움이 24.6%, 수익성 보장의 불확실성이 18.1%, 인증기준이나 절차에 대한 부담이 5.1% 등으로 나타났다<표 22>. 앞으로 유기재배를 보다 확대하기 위해서는 우선 유기농업 관련 영농기술 지도와 영농자금 지원 등이 필요하며, 아울러 안정된 판매망 확보가 관건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22〉 현재의 무농약재배를 계속하려는 이유

(단위 : 명, %)

구 분	응 답 수	구 성 비
유기재배 영농기술이 어렵고 영농자금이 많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에	56	40.6

구 분	응 답 수	구 성 비
가격이 적절하지 못하여 수익성이 낮기 때문에	25	18.1
안정된 판매망을 확보하기 힘들기 때문에	34	24.6
인증기준이나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7	5.1
기 타	16	11.6
합 계	138	100.0

Ⅳ. 친환경농산물 생산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1. 유기농업을 지향하는 친환경농업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친환경농산물의 생산량 증가추세를 보면 유기농산물에 비해 저농약농산물과 무농약농산물의 생산량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친환경농산물 중에서 저농약농산물이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저농약과 무농약농산물을 합하면 약 90% 가까이 되고 있다. 그리고 친환경농산물의 연도별 증가율도 유기농산물보다는 저농약농산물과 무농약농산물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친환경농업은 저농약 및 무농약재배 중심의 속이 얕은 유기농업으로서 아직 유기농산물의 비중이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친환경농업은 화학비료와 농약 등 화학합성물질을 저투입하는 농업이 아니라 화학합성물질을 전혀 투입하지 않고 생태계의 물질순환체계의 균형을 유지시키는 유기농업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정부에서도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을 합하여 현재 전체 농산물 생산량 중의 1%수준을 향후 5%로 끌어올리는 포괄적인 정책목표를 설정하기보다는 친환경농산물 재배유형별로, 예를 들면 현재보다 유기농산물 1%, 무농약농산물 5%, 저농약농산물 1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목표를 설정해야 하며, 또 각 목표치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추진방안도 달라져야 한다. 진정한 의미의 친환경농업은 저농약재배나 무농약재배와는 차별화되는 유기농업을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 국제적 가이드라인(Codex 유기식품 생산, 가공, 유통에 관한 가이드라인) 안에서 국내농업의 특성과 상황에 알맞는 유기농업을 모색·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친환경농업을 단순히 화학비료와 농약 등 화학합성물질의 사용량을 줄이거나 토양검정에 의해 적당량의 화학합성물질을 사용하는 것이라는 생각으로는 친환경농업의 목표와 본질을 흐리게 할 수 있다.

2. 안정된 판로 확보 노력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데 있어 가장 큰 문제점은 노동력과 비용을 많이 투입하고도 안정된 판로가 부족하여 기대만큼 많은 소득을 창출하지 못하는데 있다. 이것은 일반농산물 생산농가를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로 유도하고 전환시키는데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다. 설문조사에서도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데 있어서나 친환경농산물을 판매하는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문제점으로 안정된 판로를 확보할 수 없다는 점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일반농산물에 비해 일정수준 높은 가격으로 차별화된 안정된 판로가 확보된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의 경우도 있지만, 판로가 불안정하거나 확보되지 않은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상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일반농산물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 그리고 친환경농산물은 다품목 소량 생산되기 때문에 시기나 계절에 따라 연중 다양한 품목을 요구하는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것도 안정된 판로를 확보하기 어려운 주요 원인이 된다.

이런 친환경농산물의 안정된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소비촉진활동과 홍보활동이 필요하고, 유통조직이나 유통경로를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일반농산물과 같이 시장기능에 맡기는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자와 생산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적정가격으로 받고 팔 수 있도록 계약생산 및 생산약정을 토대로 친환경농산물 생산지를 집중화·단지화하고 합리적인 가격결정방식을 도입·적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친환경농산물이 가지는 생산의 계절적 편중, 공급품목의 다양성 부족, 동일 품목의 대량 공급능력 부족, 규격과 품질의 통일성 부족, 결품 발생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 있거나 실천할 의향이 있는 생산농가를 조직화하여 친환경농산물 생산단지를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생산품목을 다양화하고 품질과 규격을 통일화하는 것이 가능해져 지역의 친환경농산물를 브랜드화할 수 있으며, 또 개별 농가에서 얻지 못하는 규모화의 이익을 도모할 수도 있다.

3. 친환경농업에 적합한 품종 및 농자재의 개발·보급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친환경농업은 일반관행농업에 비해 노동력이 많이 소요된다. 다시 말해 친환경농업의 경우 품목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제초작업이나 병충해 방제, 지력유지(퇴비 제조와 살포) 등의 농작업을 할 때 노동력이 많이 소요된다. 이것은 친환경농업과 관련된 농기계와 농자재, 시설·장비 등이 발달하지 못하고 친환경농업기술이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의 경우 병충해가 발생한 후에는 농약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생산량 감소를 감수하거나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

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는 병충해 예방작업과 제초작업에 많은 힘을 쏟을 수밖에 없다. 또한 유기질비료(퇴비)를 제조하고 그것을 적기, 적량을 투입하여 지력을 유지시켜 농작물을 튼튼하게 자라게 하여 병충해에 대한 저항력을 키우게 되는데, 여기에도 많은 노동력이 투입된다.

이런 병충해 방제와 제초작업, 지력관리작업에 드는 노동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병충해와 이상기후에 잘 견딜 수 있는 품종개발, 생물농약을 비롯한 각종 친환경농자재의 개발, 적합한 제초기와 퇴비제조시설 개발 등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특히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을 안정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병충해 저항성 품종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4. 친환경농업의 기술체계 재정립과 새로운 기술 개발 · 보급

친환경농업은 값싼 화학비료와 농약 대신에 값비싼 각종 친환경농자재를 사용해야 하고, 또 각종 농작업에 노동력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생산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친환경농산물의 생산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일반농산물과 비교하여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절대적으로 낮은 경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농가, 지역, 작기, 연도별 단위면적당 생산량의 편차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이것은 기상조건이나 병충해 발생 등의 외부조건에 의한 영향도 있겠지만 친환경농업의 생산기술적 문제와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따라서 생산비 부담을 줄이고 적정가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친환경농업기술을 끊임없이 step-up시키는 생산자 수준의 노력과 정부 수준의 지원 및 지도가 필요하다. 오늘날 농업기술은 노동절약적, 자본집약적 기술이다. 친환경농업을 실천한다고 해서 이런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을 확대하고 친환경농산물의 가격경쟁력을 높여가기 위해서는 친환경농업기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안정화시켜야 한다. 우선 친환경농산물 생산자들이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실천·보급해온 여러 가지 농법이나 친환경농자재를 수집하여 친환경농업 기술체계를 재정립하고 새로운 친환경농업기술을 꾸준히 개발하여 적극적으로 보급해야 한다.

그리고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수많은 유기질비료나 미생물제재 그리고 농가에서 자체 생산한 친환경농자재 등이 원자재의 종류나 제조과정에 따라 기준성분이 미달되거나 성분이 균일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용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에 어려움을 주는 경우도 없지 않다. 따라서 친환경농자재 제조과정의 체계화와 성분 및 효과에 대한 과학적인 검정을 통해 균일한 성분과 효능을 갖는 친환경자재의 생산이 이루어져야만 친환경농자재의 과다 사용에 따른 부작용을 없애고 농가에서 적정한 친환경농자재의 사용으로 친환경농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필요하다면 친환경농자재 표시인증제의 도입 · 적용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5. 생산량 감소와 경제적 손실부담에 대한 소득보전

친환경농업을 시작하는 초기에는 일정기간 생산량이 감소된다. 품목과 생산자에 따라서는 친환경농업을 시작한 후 몇 년 동안 생산량 감소에 따른 경제적 손실(소득감소)을 감수해야 한다. 현재 이런 경제적 손실을 보상해주는 제도가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친환경농업의 보급·확산에 어려움이 있다. 특히 친환경농업기술이 안정화되고 정착되지 않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친환경농업 실천 초기에 적절한 정책지원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앞으로 친환경농업 직불금을 큰 폭으로 늘리고 (가칭)친환경농업진흥기금을 설치하거나 농업재해보험제도를 보완해 가는 일도 필요할 것이다. 특히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은 환경재생산에 대한 사회적 보장이기 때문에 현행의 직불금액과 친환경농업 직불금액을 그대로 중복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아니면 친환경농업 도입·실천에 따른 생산농가의 생산량 감소와 경제적 손실부담을 보전하는 경제적 인센티브를 현실성있게 늘려야 한다(ha당 150만원 이상으로 조정).

그리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역풍토에 적합하고 병충해에 강한 품종개발이 부진한 것도 생산량 감소를 초래하는 하나의 원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 친환경농업에 적합한 품종을 개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 재배되고 있는 대부분의 품종은 일반관행농업에 알맞게 육성된 품종들로 종의 다양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심각한 지경에 처해 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 수준에서 대처하기 힘든 병충해, 품종갱신 등에 따른 경제적 손실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친환경농업에 적합한 품종을 육종, 보급할 필요가 있다.

6. 친환경농업에 대한 교육·홍보 강화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문제는 일반농산물 생산농가에게 친환경농업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것이다. 아직 전체 농가의 약 98%를 차지하는 일반농산물 생산농가(친환경농업 실천농가 제외)가 친환경농업 및 친환경농산물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의식하지 못한다면 실제적인 친환경농산물의 생산기반 확대는 불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일반농산물 생산농가를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홍보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친환경농업이 과연 무엇인지 그 목적과 의의를 근본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나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기존의 각종 농민교육·홍보프로그램과 관련 예산을 친환경농업적 관점의 교육·홍보프로그램과 예산으로 과감하게 전환해야 한다. 현재 정부나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친환경농업정책을 살펴보면 여전히 선언적인 성격이 강한데, 정부나 지자체에서 의도하는 친환경농업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일반농산물 생산농가에 대한 교육·홍보활동이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접근되어야 한다.

7. 친환경농산물 농가공사업의 지원 · 육성

근래 일반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가공식품의 개발 · 보급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친환경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가공식품은 아직 그 종류가 한정되어 있다. 1차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가공사업은 그 부가가치가 생산자에게 귀속됨으로써 농업소득 증대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농산물이 과잉 생산되거나 품질이 떨어지는 등외품을 가공원료로 활용할 수 있어 농업생산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높일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된다.

우리나라 농업의 대안으로서 친환경농업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친환경농산물 가공식품을 농가공사업 형태로 생산자가 직접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제 친환경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가공식품의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친환경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가공사업은 기존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 뿐만 아니라 새롭게 친환경농업에 참입하는 생산농가의 생산기반을 안정화시키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친환경농산물 가공사업에 대해서는 식품가공기업보다는 생산자나 생산자조직으로 하여금 친환경농산물 가공식품을 개발하고 생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원해야 하며, 이런 방향으로 식품가공 정책에 대한 정부의 관점과 방향이 전환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V. 결 론

근래 우리의 농업과 밥상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정세를 배경으로 하여 근대화학농업에서 친환경성과 안전성을 소중히 여기는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하는 생산농가가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또한 일반농산물과 수입농산물의 비안전성과 반환경성에 대한 불만을 가지면서 친환경농산물의 사용가치를 인식하는 소비자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더욱이 정부차원에서 농산물시장의 전면 개방에 대응하기 위한 하나의 정책 틀로서 1990년대 중반부터 추진해온 친환경농업정책이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와 친환경농산물 생산량을 늘리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친환경인증농산물 생산농가 341호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의 행태와 특성을 분석하였다. 아울러 로짓모형을 이용하여 향후 친환경농산물의 생산확대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그 분석결과들을 토대로 친환경농업의 정착과 친환경농산물의 생산확대를 위한 몇 가지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도출, 제시하였다. 즉 친환경농업을 정착시키고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생산현장에서나 정책수준에서 유기농업을 지향하는 친환경농업, 안정된 판로 확보 노력, 친환경농업에 적합한 품종 및 농자재의 개발 · 보급,

친환경농업의 기술체계 재정립과 새로운 기술 개발·보급, 생산량 감소와 경제적 손실부담에 대한 소득보전, 친환경농업에 대한 교육·홍보 강화, 친환경농산물 농가공사업의 지원·육성 등이 적극적으로 모색, 추진되어야 한다.

참 고 문 헌

1. 강창용 외. 1999. 친환경농산물의 생산과 소비 행태 분석. 농촌경제 22(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 김충실 외. 1993. 유기농업 선호모형 개발과 생산자선호 분석. 농업경제연구(34). 한국농업경제학회.
3. 오호성. 2000. 저투입 환경농산물의 수요개발에 대한 연구. 농림부.
4. 윤석원. 1999. 유기농산물 생산·소비유통·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농림부.
5. 이순석 외. 2001. 비모수적 접근에 의한 친환경농업의 효율성 분석. 농업경제연구 42(2). 한국농업경제학회.
6. 조완형. 2003. 친환경농산물 생산·소비·유통의 특성 분석과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7. 조완형. 2004. 친환경농산물 생산·소비·유통실태와 개선과제. 강원농수산포럼 제28차 정기세미나 결과보고서. 강원농수산포럼.
8. 工藤昭彦. 1995. 農業環境問題と農法轉換. 新農法への挑戰 - 生産·資源·環境との調和. 博友社
9. 波多野 豪. 1998. 有機農業の經濟學. 日本經濟評論社.
10. Michael Burton, Dan Rigby and Trevor Young. 1999. Analysis of Determinants of Adoption of Organic Horicultural Techniques in the UK.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50 : 47-63.
11. Tim O'Riordan and Dick Cobb. 2001. Assessing the Consequences of Converting to Organic Agriculture.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52 : 22-35.